

화장실문화 바꾸기



김정석 교수 전주대 예술문화연구소 교수
화장실문화바꾸기 팀장

별화자업을 미치고 난 후의 전주 동물원 화장실



▲전주대장석수 교수와 자원 봉사자들

미소공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나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다.' 면 그것은 아마도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화장실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날 때였을 것이다.

전주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며 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들 에게 불어닥친 이 바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 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우연 한 기회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전주지협의회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마음 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웬걸! 화장실이 별난 매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지나가나 오로지 화장실 생각뿐이다. 도리어 시 일이 경과되면서 화장실에 대해 생각들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왜일까?

우리의 화장실문화 바꾸기 사업은 지난여름 아주 무더운 날, 우리대학의 예체능·영상학부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하는 학생 7명과 같이 시작되었 다. 우리가 이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부터였다. 자원봉사가 가져다주는 의미도 중요하였지만 우리의 문화시 민의식 수준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를 감히 관 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지역사회에서는 매우 신선한 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전주도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많은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노력들 중 하나인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그 동안 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젠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자원봉사 참여를 통 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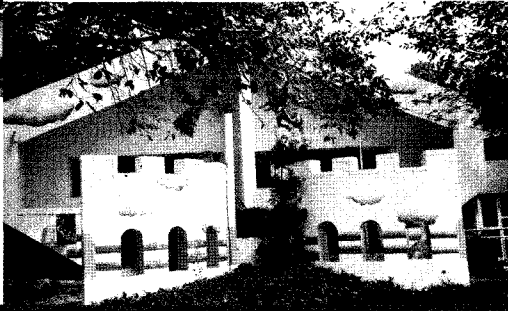
우리의 작은 힘으로 얻은 최고의 전리품

우리가 첫 번째 선택한 화장실은 전주시 동물원 내 화장실이었다. 동물원에는 총 3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의 목표물이었다. 그런 데 그 3개의 화장실 중 유독 얼마전 개·보수를 마친 한 개의 화장실에만 이용자 수가 빈번한걸 보면 사람들의 심리는 다 비슷하나 보다.

우린 화장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표로 지정 한 화장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입하기를 매우 꺼려한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나 뭇가지에 가려진 희죽한 화장실은 너무 썰렁한 느낌을 주었고, 보여지는 내부도 회색 칠을 하여 매우 칙칙해 보였다. 우선은 화장실을 찾는 이용 자에게 거부감을 없애는 일부러가 중요한 것 같 았다. 한마디로 산뜻한 청량제 역할을 할만한 테 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린 동 물원의 주고객인 아이들과 어울릴만한 테마를 잡기로 하였다. 어느 순간 푸른 녹음에 묻혀버려 있던 화장실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과 함께 아름다운 무지개 요정들과 씩씩한 나팔수 로 채워졌다. 아이들의 동심을 위하여 피터팬과 텅커벨을 각각의 남녀 화장실 입구에 그려 넣었 다. 어느 사이 하나둘씩 부모의 손에 끌려 찾아 오던 아이들 손가락은 화장실 이곳저곳을 가리 키게 되었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 습도 간혹 눈에 띄었다. 여름날 무더운 더위와 전쟁을 치르면서 얻어진 최고의 전리품은 역시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였다.



▲작업전 모습



▼아름답게 변한 화장실 ▼연꽃무늬로 만든 전돌을 부착하는 화장실문화 바꾸기팀

다음 화장실 목표는 덕진공원이었다. 전주시 덕진공원은 4만5천 평의 호반을 낀 휴식처로서 연꽃으로도 아주 유명하다. 그 곳에서 만난 화장실 또한 상반된 화장실이 두 개가 놓여있었다. 우린 이 곳에서 많은 고심을 하였다.

이미지에 맞는 화장실 만들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미지에 맞는 화장실 만들기」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진 화장실은 빨간 벽돌로 아주 단단하게 지어진 이미 오래 전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화장실의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이다. 자칫 지금보다 더 못할 수 있겠다는 염려 때문에 한동안 답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우리는 덕진공원내 화장실에 전돌 부착 작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돌 작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라코타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찰흙에 모양을 새겨 섭씨 1,000도의 가마로 구어 내는 것이다. 우선 디자인을 설정하고 찰흙을 반죽해 무늬를 새겨 넣기를 일주일, 다시 그늘진 곳에 말리기를 일주일, 꼬박 2주가 지나서야 우린 현장으로 갈 수 있었다. 덕진공원의 상징물인 연꽃잎을 최고봉으로 하여 그 발 밑에 반원형의 크고 작은 잎들과 함께 잉어를 놓게 하였다. 웬지 잉어와 연꽃은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또한 전주가 후백제 도읍지였던 것에 착안하여 백제문화 와당에서 따온 연화문과 연결하여 그 주변 틀을 장식하였다. 붉은 벽돌로 무뚝뚝하게 버티던 화장실이 비로소 한 식구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의 발걸음을 돌렸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다음 세 번째로 우린 간이터미널 화장실을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용하는 이곳은 두 평 남짓한 화장실이었기에 이것저것 치장한다는 것이 도리어 부담스러워 보였다.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놔두기에는 너무 개운치 않는 그런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이 좁아 그 안에서의 기능도 문제였지만 잠시 머물다 갈지라도 들어서는 입구 좌우에 자연스러운 파스텔 톤으로 칼라처리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테마를 잡는 일이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작업을 한다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자본으로 이용객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미술 전공자이고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매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안심이었다.

글을 마치며...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전주시협의회와 전주대학교 예술문화종합연구소의 주관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승강장 주변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은 어디든 찾아가려 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손길이 닿은 이곳에서 잠시나마 찡그림이 변하여 미소를 보일 수 있다면, 아니 투덜대는 소리가 지금보다 적게 들린다면 우리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맞출 수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도 또 다른 먹이(?)를 찾아 화장실로 나선다.

